제6장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라

도 입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아도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준다'는 말을 하곤 한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믿은 것 같다. 율곡선생은 이 장에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와 재앙을 만나 임금이 수신하는 도리와 환난을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굳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만, 선생이 이 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본 문

[율곡의 풀이]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항상 이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사(人事)가 이미 닦아지면 하늘의 경계를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서경]

이윤(伊尹)이 말하였다. "아, 하늘은 친(親)한 이가 없고 잘 공경하는 사람만을 친하게 대하며, 백성은 일정하게 그리워하는 이가 없고 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귀신은 일정하게 흠향하는 이가 없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제사를 흠향하니, 임금의 자리란 어려운 것이다."

[서경]

덕(德)이 순수하고 한결같으면 움직이는 곳마다 길(吉)하지 않은 곳이 없고, 덕이 두셋으로 어긋나면 움직이는 곳마다 흉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오직 길하고 흉한 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며, 오직 하늘이 재앙과 상서(祥瑞)를 내리는 것은 덕에 달려 있다.

[시경]

하늘이 노하는 것을 공경하여 감히 놀며 즐기지 말 것이며, 하늘의 변하는 것을 공경하여 감히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 높은 하늘은 지극히 밝아서 네가 가는 곳을 다 보며, 높은 하늘은 지극히 밝아서 네가 이리저리 노는 곳을 지켜본다.

〈주석〉 동씨(董氏 : 한 나라 때의 동중서)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곧 천지와 함께 유통하고 왕래하며 상응(相應)한다. 그러므로 천인(天人)이 서로 어울릴 때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국가가 장차 도를 잃어버리려 하면 하늘이 이에 먼저 재해를 내려 경고하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괴이한 일을 일으켜서 경고하여 두렵게 하며, 그래도 그 변화할 줄을 모르면 손상과 멸망이 이른다."

[서경]

주공(周公)이 말하였다. "은왕(殷王)인 중종(中宗)은 엄숙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명으로 스스로를 단속했다."

[서경]

성왕(成王)이 말하였다. "옛날 크게 꾀할 때는 어지러워지기 전에 단속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보전하였다."

〈주석〉 공자가 말하였다.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 보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며, 어지러워질까 염려하는 것은 그 다스려짐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해도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보존되어도 망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스려져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아니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자가 말하였다. "성인이 경계하는 것은 반드시 왕성할 때인데, 사람은 그 왕성할 때에 경계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안일하고 부유한 데 젖으면 교만과 사치가 생겨나며, 한가하고 방자한 것을 즐기면 기강이 무너지며, 화란(禍亂)을 잊어버리면 죄악이 싹튼다. 그러므로 점점 음탕해져서 난(亂)이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하게 된다."

[율곡의 풀이]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임금이 능히 선정을 행하여 화(和)한 기운이 위에 감응하면, 아름다운 상서[祥]가 이르고, 무도(無道)한 일을 많이 행하여 괴이한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재앙이 일어나니, 하늘에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모두 사람이 부른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떳떳한[常] 것도 있고 변하는[變] 것도 있는데, 선은 상서를 오게 하고 악은 재앙을 오게 하는 것이 이치의 떳떳한 것이요, 선해도 상서를 보지 못하거나 악해도 재앙을 보지 않는 것은 이치의 변괴(變怪)이다.

성스러운 임금이 재앙 때문에 자기 몸을 닦고 반성하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되고, 용렬하고 어두운 임금이 재앙이 오지 않는다 하여 묵은 관습에 젖어 있으면 도리어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하늘은 진실에 응하지 꾸밈에 응하지 않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덕(德)을 닦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릴 수 있으며, 멸망하는 것을 보존할 수 있으니, 어떤 재앙인들 그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오직 밖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몸을 닦고 반성하는 진실한 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 없고, 나라의 형세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은 국가가 한가한 때에도 마땅히 미리 덕이 있는 정치를 하고 깊이 환난을 막아서 오래 다스리고 영구히 편안한 계책을 삼아야 하니, 하물며 재앙과 변고가 생겨 경계하는 경우이겠는가? 보통 사람의 마음은 걱정이 눈앞에 나타나면 조금 삼갈 줄을 알지만, 생각지 못한 환난이 생기면 대체로 경계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재변(災變)이 처음 일어날 때를 당하면 비록 평범한 임금이라도 경동(驚動)할 줄 알지마는, 재변이 자주 일어나는데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에 익숙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요사스러운 기운의 반응이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데, 빠르면 화(禍)가 적고 늦으면 화가 크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화란이 이미 일어나 멸망의 형상이 나타난 뒤에는 비록 마음을 혁신하고 덕을 닦고자 하여도 이미 소용이 없다.

해 설

율곡 선생은 천재지변은 인간의 일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천인상감(天人相感) 이론과 관계되는데 곧 그런 재앙은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여 생기는 일이라 보았다. 인간이 잘 하면 하늘은 상서러운 기운으로 풍년이 들게 하지만, 인간 특히 군주가 잘못하면 백성들의 원망하는 기가 하늘에 올라가 가뭄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은 한 나라 때의 동중서(董仲舒)이다. 재앙(災殃)은 임금이 잘못한 결과에 의하여 하늘이 경고하는 것이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이변(異變) 내려서 고치도록 한다고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는 원시신앙의 흔적으로 『서경』이나 『시경』에 이런 사상이 보이지만, 하늘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후대에 와서는 앞의 동중서의 천인상감설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과 인간이 간여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조심하고 경계하는 의식을 조선말에도 실시하였다.

순자(荀子)는 일찍이 하늘과 인간의 일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갈파하였지만, 후대의 유학자들이 동중서의 이 이론을 유지했던 것은 아마도 군주의 폭정을 방지하는 역할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가 미친다는 것은 어쩌면 인사의 당연한 일이요, 불교식으로 보자면 인과응보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이고도 재빨리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적용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볼 문제

1.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자연)이 경고한다고 믿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겠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을까? 세상에는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그들의 말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늘에 어떤 인격적 의지가 아니라 이치의 필연으로서 천벌(天罰)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천벌이 과연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2.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주역』)고 한다. 선을 쌓음으로 인해 생긴 경사스러운 일과 불선을 쌓음으로 인해 생긴 재앙 중 여러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사와 재앙이 있나요?

3.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를 따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많은 경우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자연재해였는데도 손쓰지 않아 겪게 되는 재앙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재앙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예방책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다. 그런데 인간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예견되는 재앙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시켰을 경우 발생되는 재앙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볼 때이다.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백두대간의 산림훼손 등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인 지 소 위 기 미 악 내 여 천 지 유 통 이 왕 래 상 응
人之所爲 其美惡은 乃與天地와 流通하여 而往來하며 相應하나니
천 인 상 여 지 제 심 가 외 야
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니라 (『시경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所 : 것/之 : ~의/爲 : 하다/其 : 그/美 : 좋다/惡 : 악하다/乃 : 이에/與 : ~와 함께하다/流 : 흐르다/通 : 통하다/而 : 접속사/往 : 가다/來 : 오다/相 : 서로/應 : 응하다/際 : 사이, 때/甚 : 매우/可 : ~할만하다/畏 : 두렵다/也 : 어조사

*美惡 : 좋고 나쁨

*可畏 : 두려워할 만한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천인상여(天人相與) : 천인상감(天人相感)과 같은 뜻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늘이 하는 일과 관계 된다는 뜻. 곧 사람 곧 군주가 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주는 일

해석

사람이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곧 천지와 함께 흘러 통하고 왕래하며 상응(相應)한다. 그러므로 천인(天人)이 서로 어울릴 때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위자 안기위자야 망자 보기존자야 난자 유기치자야
危者는 安其位者也요 亡者는 保其存者也요 亂者는 有其治者也니라
(『서경의 주석』).

한자 풀이와 해설

危 : 위태하다, 두려워하다/者 : ~것/安 : 편안하다/其 : 그/位 : 지위/亡 : 망하다/保 : 지키다/存 : 보존하다/也 : 어조사/亂 : 어지럽다/有 : 있다/治 : 다스리다

*세 개의 병렬문이다.

*危 : 위태롭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亡 : 망할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亂 : 어지러워질까 여기다의 뜻으로 쓰임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보존(保存) : 보호하여 남아있게 함

해석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 보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요, 어지러워질까 염려하는 것은 그 다스려짐이 있게 하는 것이다.